

고양의 저력

+

대한민국 책의 도시, 고양시

고양에서 책이랑 놀고양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 선정

2023년 ‘책의 도시’로
선정된 고양시는 올 한 해 동안
독서생태계를 잇는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책을 매개로 관계를
확장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독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예술과 결합한 새로운
축제 패러다임을 제시할
고양시에서 책이랑 놀아보자.

WRITER. 이예지

“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책의 도시,
고양
”



‘읽는 사이에’ 책으로 하나 되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도시 한 곳을 선정해 ‘책의 도시’로 선포하고, 독서의 달인 9월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독서문화축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선정된 도시에서 개최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에 걸쳐 진행된 심사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2023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도서관 책잔치’, ‘독서토론 한마당’과 같은 다양한 독서축제 개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쾌거다. 고양시는 지역 독서 생태계와 상생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19개 시립도서관과 97개 작은 도서관, 40개 지역 서점을 갖춘 독서 인프라를 바탕으로 600여 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127개 독서동아리를 운영했다. 이뿐 아니라 11

년째 ‘도서관 책잔치’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작가 북토크와 공연, 체험, 아티스트 마켓 등 풍성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일산호수공원을 채웠다. 무엇보다 2021년 11월에 열린 ‘독서토론 한마당’은 연령별·주제별 독서모임, 서평게임, 작가와의 만남 등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읽는 사이에(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이끄는 고양시는 독서·출판·도서관·서점 등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지역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참여 독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계기로 전국의 출판·교육·각종 문화예술 단체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해

전 국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향유 도시로 나아갈 예정이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잇꾼’

고양시는 지난 2월 16일 고양시립화정도서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SNS 서포터즈 ‘사잇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출항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포터즈로 선발된 ‘사잇꾼’ 8명이 참석했다. ‘사잇꾼’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잇꾼’은 연중행사 및 봉사사에 참여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책의 도시’ 고양시를 알리고자 선발됐다. 올 한 해 동안 개인 SNS 채널을 활용해 행사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대한민

국 독서대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사잇꾼’들의 밝은 표정에서 고양시와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포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읽는 사이에(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독서 활동을 약속했다. <카피 쓰는 법>의 저자 이유미 작가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유미 작가는 이번 강의에서 ‘팔지 않아도 사게 되는 카피라이팅’이라는 주제로 실천하는 글쓰기를 강조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홍보 카피를 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얻어 가기 위한 ‘사잇꾼’들의 뜨거운 열정이 강의 공간을 가득 메웠다.

“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공감의
연결고리
”



mini interview

‘사잇꾼’ — 한혜영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부터 독서가 어려운 사람까지,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잇꾼’으로서 이번 행사를 잘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책과 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mini interview

‘사잇꾼’ — 문화라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고양시에서 열리게 되어서 기분 좋습니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고양시의 도서관이 독서를 위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걸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